

2003년 후기 불교관련 박사 학위 논문은 모두 104편. 이 가운데 윤회론과 연기론을 배경으로 인간복제, 낙태 등 논란이 계속되는 사회문제에 불교 윤리적 관점을 제시한 구본술 씨의 <불교의 생유 연기에 관한 연구>

대학마다 2003년 후기 학위 수여식 눈길 끄는 불교 박사논문 2편

교의 '생유 연기(生有 緣起)'에 관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또 오경후 씨는 <조선후기 승전(僧傳)과 사지(寺誌)의 편찬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불교계의 자주적 역사 의식을 밝혔다.

불교의 생유 연기에 관한 연구

구본술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불교는 수정 시점을 생의 시작으로 보고, 경전에서는 태아를 죽이는 것을 성인 죽이는 것과 같은 바라미 죄나 무라자 등 중형죄로 간주했다. 생명옹호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생유 연기론에서는 낙태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구본술 씨는 <불교의 '생유 연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씨는 윤회론과 연기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불교적 생(生)의 현상을 규명하여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적 논의가 얼마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비판적으로 살폈다. 또 생명복제에 대해서는 "생유 연기론에 의하면 새 생의 주체가 될 중음신(中陰身) 사람이 죽어서 생을 받을 때까지의 중간 존재에게는 전생의 업

이 복제되기 때문에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의 자기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적 책임을 부여받는다"며 "생유 연기에 관해서 배아복제, 세포융합술, 유전자 이식 및 조작 등의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구 씨는 "생명을 파괴·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는 새로운 악업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교로 논문을 마쳤

체세포 복제행위 '생유연기 사상' 왜곡

낙태는 바라미罪 등 중죄 간주

오경후
동국대 사학과



조선후기 승전과 사지의 편찬 연구

"조선후기 승려의 비문과 사찰사적의 출현은 당시 불교에 대한 지대한 탐입과 전란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조선 고있다. 오 씨는 논문에서 총 여덟 개의 승전과 사지를 다루고 있는데, 해안(海眼) 스님의 <금산사>, <대둔사사적> 등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후 편찬된 사적기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과 조선불교의 주체성을 선양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은 다산 정약용이 편찬에 참여한 <대둔사지>를 '조선후기 사상계의 등향과 불교계의 자주적 역사인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적기'로 평가한다. 또 한치운의 <석지>는 일반사의 범주에 불교사를 포함시키고 중국에 조선의 문화를 알렸다는 점과 불교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기에 유학자에 의해 저술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대둔사사적> 조선불교 주체성 선양

한치운의 <석지> 일반사에 불교사 포함

불교계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정체성 회복의 움직임인 동시에, 인도·중국 불교와 대등한 면을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는 자주적 역사인식 과정이었다." 동국대 사학과 오경후 씨는 <조선후기 승전과 사지의 편찬 연구>에서 승전과 사지 편찬의 시대적 의미를 이같이 부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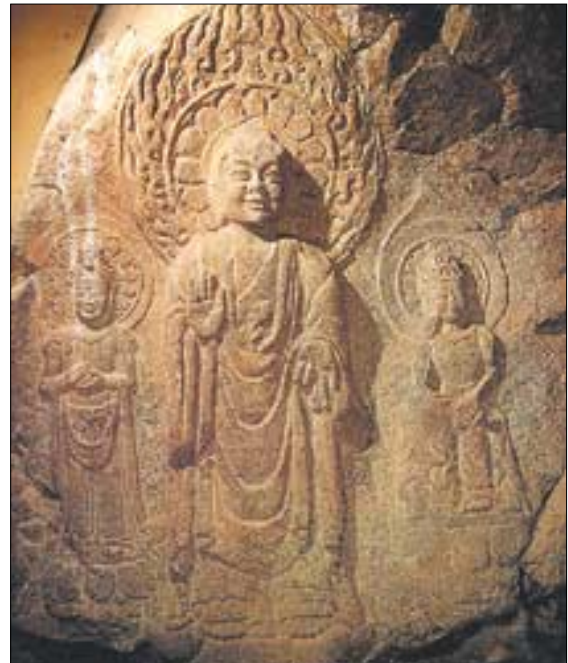


불상(4)

웃음의 향연

한국미술의 특징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낙천성을 든다.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치관을 우리 미술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탐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지키는 인왕상이 귀엽고, 무덤 앞의 문인 석은 무심하게 웃고 있으며, 귀신을 쫓아 야할 호랑이가 거세되어 바보스럽게 등장

독특한 미소에 빠지게 된다. 중국을 답사 하다보면 종종 마주치는 복위 불상에서 그 미소만 보더라도 여행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질 정도이다. 고구려 불상처럼 길고 가늘한 얼굴에 눈가와 입가를 살짝 올려 짓는 미소는 매혹적이다. 우리나라 서산마애삼존불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미소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아무런 권위와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지 않아 자연스럽고 환한 웃음이다. 이처럼 활달하고 시원하게 웃는 부처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힘들다. 물론 그 연원을 따지면 중국 공원석굴(龕) 제1굴의 불상과 같이 복위시대의 미소에서 좀더 부드러운 동위시대의 미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그 웃음을 훨씬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승화시킨 능력을 백제인은 갖고 있는 것이다. 서산마애삼존불의 세 분은 각각 웃음이 다르다. 가운데 석가불은 풍만한 몸집과 원만한



서산마애삼존불(백제 7세기, 국보 제84호, 충남 서산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활달한 웃음이다.

시원·넉넉·거리낌 없는 웃음 친근감 줘 서산마애삼존불상 한민족 기질 상징

하고, 민화 속에는 꿈과 사랑의 환상이 펼쳐진다. 우리만큼 웃음과 해학이 가득한 미술도 드물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의 작품이라도 미술 속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운 처지와 힘든 상황을 긍정적인 사고와 해학적인 여유로 극복하는 지혜가 돋보일 뿐이다. 이것이 수많은 침략을 겪으면서도 5천년의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다. 국난을 밝음과 웃음으로 극복해내는 지혜를 우리민족은 밝히 빛내왔던 것이다.

상호, 그리고 시원하게 큰 눈에 쾌활한 웃음이 가득하다. 반갑게 맞이하는 듯한 넉넉한 웃음을 보면, 처음 보는 이라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누구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맞이하는 웃음은 부처님과 우리의 거리를 말끔하게 없애준다. 오른쪽에 배배구슬을 양손으로 띄우고 서있는 제화갈라보살은 매우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띠고 있다. 또 왼쪽에서 오른발을 무릎 위에 올려 반기를 들고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사유하는 미륵보살상의 웃음은 매우 귀엽다. 친근함을 나타내는 데는 웃음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드물다. 이처럼 인도불상의 미소는 위엄 속에 가려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는 미소가 풍부해진다. 특히, 북방민족인 복위의 불상에서는 그

■경주대 문화재학부

경남 합천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세종대왕 어진영 등 유물 5점이 1일 열린 경남 도문화재위원회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중 2점은 문화재청에 보물로 신청될 예정이다.

경남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5건의 해인사 유물은 세종대왕 어진영, 청동소종, 감지금니문수좌상 승무생계법, 고려시대 복장, 추사 김정희의 해인사 중건 상량문 등이다.

이중 1922년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

해인사 소장 유물 5점 경남 지방문화재 지정

개금불사 때 출토된 복장유물인 감지금니문수좌상 승무생계법과 해인사 중건 상량문은 보물로 지정·신청된다.

특히, 감지금니문수좌상승무생계법은 1326년(태종 3년) 인도 지공(智空)스님이 고려에 와서 수계 제자에게 내린 계첩으로, 고려 14세기경의 사경과 사경화 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고려시대 복장은 상의 6점, 포류 2점 등 총 11점으로, 그동안 실증자료가 부족했던 학계의 고려시대 복식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 =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발해는 아미타 신앙 정토국

강희정 박사
학술대회 발표논문

발해가 아미타 신앙이 유행한 정토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오는 22일 서울대박물관 주최로 열리는 <해동성국-발해특별전> 기념 '발해 고고학의 최신 성과' 국제학술회에서 강희정 박사(서울대박물관 객원연구원)가 발표하는 논문에서 나타났다.

강 박사는 논문 '발해 불교 미술의 신해석'에서 최근 발해 지역 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된 발해 유물을 근거로 △ 발해의 아미타 신앙 △철불과 도제불의 존재 △밀교의 유행에 대해 주목한다.

강 박사는 발해의 아미타 신앙에 대해 "미타정진(손가락 두 개를 굽혀 불인 아미타불의 수인을 한 아미타불과 이불병좌상의 광배, 연꽃에서 태어나는 아기형 조각은 발해, 특히 함경도 이북에 위치한 동경성을 중심으로 아미타 정토 신앙이 유행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기존에 단순히 동불(童佛)이라고 언급하던 아기형상 조각은 깨끗해진 몸으로 부처님의 연지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모습이며, 이불병좌상 광배의 연화화생상은 다른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발해 불상의 특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박사는 "동경성은 일본과 발해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험난한 백길로 고난을 겪었을 동경성 사람들에게 사후 극락왕생을 보장하는 아미타신앙은 큰 위안이 됐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외에도 강 박사는 "소조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작은 크기의 철불은 불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장인의 솜씨로 보이며, 기존에 석제로 추정되던 이불병좌상들이 동경대 확인 결과 도제로 판명된 것은 발해의 도자기 굽는 기술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일본 밀교 승려 구카이와의 교류,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전래, '육비보살상' 존재 등을 이유로 발해에 밀교가 성행한 후 요와 금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국제학술회 '발해 고고학의 최신 성과'는 중국·러시아에 걸친 지역에서 발굴된 발해유적을 발해 고고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국내에 소개하는 자리다. 오유진 기자

미타정진 아미타불 · 이불병좌상 광배 유행 밀교 성행...일본과 교류, 요 · 금나라에 영향

시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향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두번째 49재 안내

제 1재 8월 17일	제 2재 8월 24일	제 3재 8월 31일
제 4재 9월 7일	제 5재 9월 14일	제 6재 9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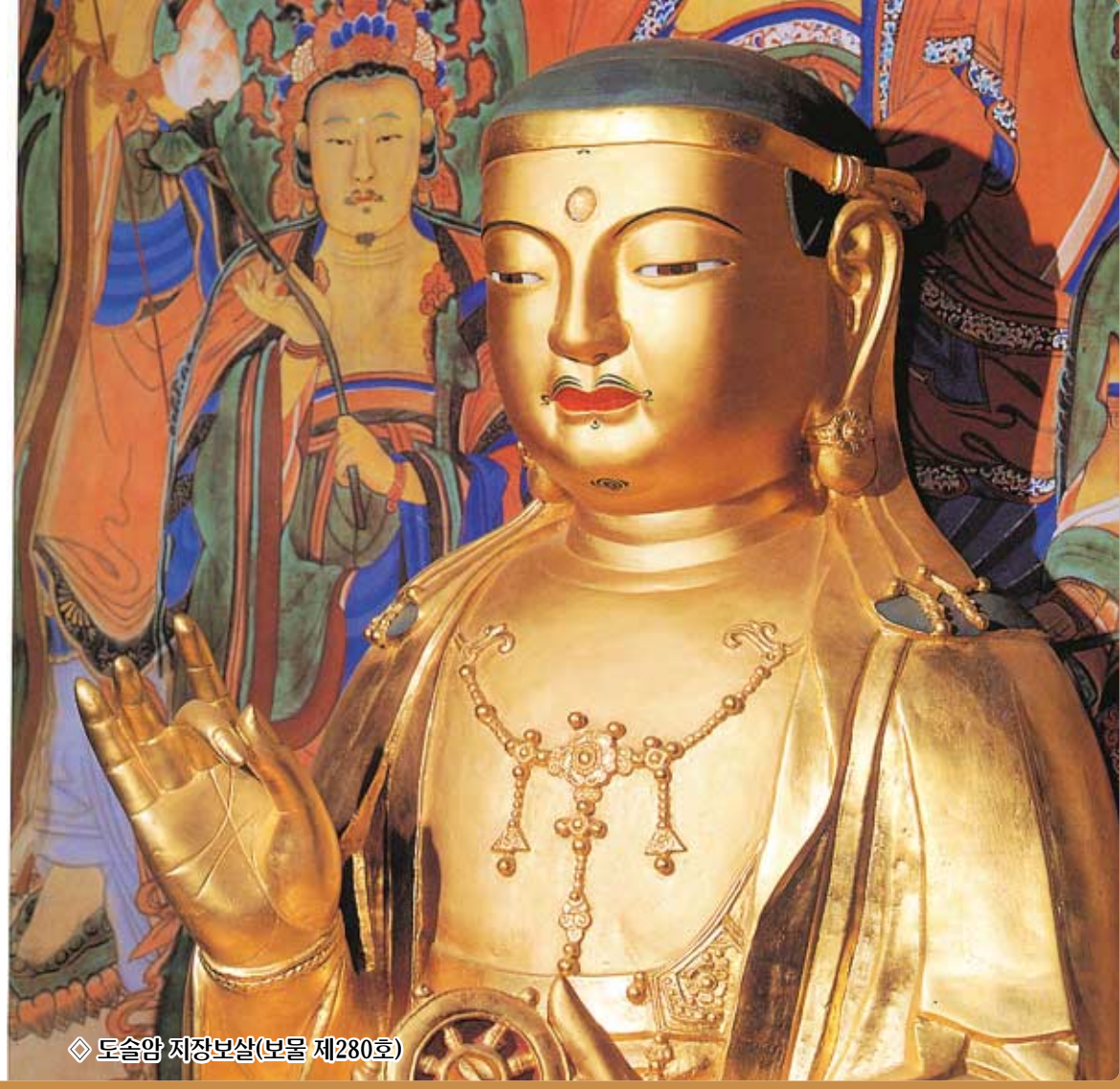
두번째 49재 - 9월 28일 원명사 묘여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암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암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